

월요 CEO의 희망편지



김치담그는 봉사활동에서 배우는 경영이론.

주말을 맞아 지난 토요일엔 기획총괄산하 임직원들과 함께 요양시설인 '무지개마을'에 봉사활동을 다녀왔습니다.

무로 깎두기 김치를 담구는 봉사로 무를 깨끗이 세척하고 껍질을 벗긴 후 잘게 썰어 양념을 버무리면 맛있는 깎두기가 완성되는 일련의 작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봉사활동을 하면서 평소 만나서 대화 나누기가 어려운 임직원들과 모처럼 가까이서 소통할 수 있는 귀한 시간이었고 우리가 만든 김치를 맛있게 드실 분들을 생각하니 잠시 흘린 땀의 진정한 의미를 느낄 수 있는 소중한 시간이었습니다.

깎두기 김치를 썰고 버무리다 보니 예전에 맘속에 정리하여 두었던 '김치이론'이 생각나 잠시 임직원들과 저의 생각을 나누었죠.



'김치론'이란?

소금에 절여져 짠 맛 만을 내는 배추와 무지만
고춧가루, 새우젓, 마늘, 생강 등 다양한 재료들이
비율과 순서에 맞게 첨가되고 이들이 서로의 맛과 향을 받아들여
함께 융합되고 숙성되어지면 맛과 영양이 뛰어난
세계적으로 우수한 김치로 다시 태어난다는 이론입니다.
최근사회의 핫이슈인 4차 산업혁명도 사실은
김치처럼 융·복합되고 이 업종간의 컨버전스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리고 보니

우리 제주개발공사에도 꼭 필요한 이론인 것 같습니다.



우리 회사도 달랑 사명과 비전 등 구호만으로는
사실 아무것도 할 수 없지만 다양한 역량과 기술을 가진
부서, 사람, 기술, 전략, 노력들이 한데 어우러지고 융합된다면
우리가 함께 꿈꾸어오던 회사, 새로운 부가가치를 끊임없이 창출하는
글로벌 창의기업으로 재탄생할 것이라고 굳게 믿고 있습니다.

개개인의 능력들이 있더라도 서로의 다름을 인정하고
장점을 서로 받아들여 김치처럼 버무려지고 숙성된다면
이것이 시너지가 되고 팀웍이 되어
우리들을 경영목표로 이끌어 갈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멀리가려면 함께 가라"는 말처럼
'우리 모두 김치처럼 함께 하나가 되면 어떨까' 하고
봉사활동을 하면서 생각해보았습니다.